

# KIA, 김주찬 복귀 하자마자 투런포

### 전력 재정비 '5강 굳히기'

### 신에 오준혁·백용환은 휴식

### 홍건희, 두산전 선발 출전

'전력 재정비'로 KIA가 5강 굳히기에 들어갔다.

KIA는 7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지난 7월23일 왼쪽 견갑골 미세 골절로 빠졌던 김주찬이 1군에 복귀하면서 외야수 오준혁이 엔트리에 제외됐다. 포수 백용환은 이성우와 자리를 맞바꿨다.

등투와 함께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주찬은 세 번째 타석에서 삼성 선발 정인욱의 직구를 공략, 복귀를 알리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주중 1군 선수단과 훈련을 하면서 복귀 의지를 다졌던 김주찬은 지난 6일 LG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2번 지명 타자로 나와 3타수 1안타로 감을 조율했다. 노수광과 윤정우의 상승세 속에 김주찬의 가세로 외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성우도 이날 9번 자리에서 선발 출장해 외국인 투수 지크와 배터리를 구성했다. 이성우는 백용환의 타격 부진 속 '위기의 지크'와 호흡을 맞추며 분위기 전환 역할을 맡았다.

오준혁과 백용환의 말소에도 나름 의미와 계산이 있다.

김기태 감독은 7일 엔트리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백용환의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 2군에서 편하게 경기를 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백용환이 공격적으로 좋아져서 돌아오면 순위 싸움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경기에서 앞서 백용환을 붙잡고 특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시간 내내 강도 높게 백용환의 타격을 지도한 김 감독은 "타구 넘어가는 것 봤느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얼굴에 독기가 보인다. 저렇게 자신있게 해야 하는데"라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마스크를 썼던 이흥구가 첫 타석에서 시원한 스리런을 터뜨렸지만 9회 대타로 들어섰던 백용환은 백정현의 4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최근 10경기 타율은 0.190(2타수 4안타)으로 떨어졌다.

김 감독이 기대를 많이 한 신에 자원 오준혁도 노수광의 뜨거운 행보 속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김 감독은 삼성 원정 첫날부터 오준혁에게 "삼진을 당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침착하면서 자신있는 공격을 주문했다. 4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소극적인 스윙으로 두 개의 삼진을 기록했던 오준혁은 하지만 5일 대타로 나와 삼진을 추가했다. 김 감독은 6일에도 오준혁을 불러세워 전날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파이팅을 외쳤지만 이날 경기에서도 오준혁은 삼구삼진을 당했다.

결국 김 감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두 신에 선수를 2군으로 내려 재충전을 하도록 했다.

마운드에도 전력 재정비가 이뤄진다. 지난 7월29일 오른쪽 가슴 근육통으로 빠졌던 홍건희의 복귀 날짜가 앞당겨졌다. 홍



7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김주찬이 5회초 무사 1루 때 삼성 선발 정인욱의 투구를 잡아당겨 좌월 투런홈런을 날리고 홈인하며 1루에 있었던 윤정우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건희는 6일 퓨처스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이닝 동안 2개의 공을 던지며 부상 후 첫 실점을 치렀다. 최고 142km의 스피드를 찍은 홍건희는 피안타 없이 볼넷 하나, 탈삼진 두 개의 호투를 하면서 KIA의 다음 경

기가 진행되는 잠실로 합류하게 됐다. 더위가 변수가 되고 있는 8월. KIA가 가을잔치를 위해 빠르고 세밀한 전력 구성으로 5강 싸움을 하고 있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기태 감독 "찬호야 넓게 보고 다녀"

### 덕아웃 T 특특

▲처음 아니에요? = 총휘무진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김주형이다. 지난 4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결승 3점포 홈런을 때렸던 김주형은 5일 삼성 원정에서는 멀티 홈런, 6일에 3안타 경기를 했다.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김주형의 활약이 돋보였다. 6일 6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주형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서동욱이 벤치로 물러나자 2루수로 자리를 옮겼다가 3루수에 이어 1루까지 맡으면서 하루에 4개의 포지션을 돌았다. 김주형은 "한 경기 4포지션은 처음 아니냐?"며 웃었다. KIA에서 한 경기 4포지션은 김주형이 최하다.

▲감사합니다 = 특별한 생일을 보낸 외야수 노수광이다. 지난 6일 노수광은 덕아웃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다. "생일이다"는 프런트의 말에 덕아웃에 있던 관계자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축하를 보냈다. "감사합니다"라고 수줍게 인사를하던 노수광은 경기 도중에도 특별한 생일 기억을 남겼다. 7-2로 앞선 3회 2사 1루에서 삼성 선발 김기태를 상대로 우측 담장 넘어가는 생일 자축포를 쏘아올린 노수광은 다음 타석에서는 경기장을 찾은

KIA 팬들이 불러준 생일축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시아 좀 넓혀라 = 대구의 살인적인 더위에 시야까지 좁아진 선수들이다. 6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앞서 진행된 훈련 시간. 덕아웃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김기태 감독으로 내야수 박찬호가 지나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마시던 박찬호를 향해 김 감독이 "시아 좀 해주라"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 박찬호는 뒤늦게 김 감독을 발견하고 인사를 했다. 이에 김 감독은 "시아 좀 넓히고 다녀라"며 웃었다.

▲여전히 목표는 200이닝 = 200이닝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외국인 선수 헤타다. 7월31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9이닝 완투로 10승을 채웠던 헤타는 지난 6일 삼성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추가했다. 헤타는 1회 수비진의 실수 속에 먼저 2실점을 했지만 2회 7점을 뽑아준 타자들 덕분에 5회만 소화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 시즌 22경기에 나온 헤타의 기록은 147.1이닝, 평균자책점 3.36. 헤타는 "여전히 200이닝 목표만 생각하고 있다. 200이닝을 생각하면서 거가 보면 시즌 막바지에는 다른 목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며 200이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여전히 목표는 200이닝 = 200이닝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외국인 선수 헤타다. 7월31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9이닝 완투로 10승을 채웠던 헤타는 지난 6일 삼성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추가했다. 헤타는 1회 수비진의 실수 속에 먼저 2실점을 했지만 2회 7점을 뽑아준 타자들 덕분에 5회만 소화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 시즌 22경기에 나온 헤타의 기록은 147.1이닝, 평균자책점 3.36. 헤타는 "여전히 200이닝 목표만 생각하고 있다. 200이닝을 생각하면서 거가 보면 시즌 막바지에는 다른 목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며 200이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

## 박성현, 올 시즌 트로피 벌써 5개

### KLPGA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장타여왕' 박성현(23·넵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임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박성현은 7일 제주 오라 골프장(파72·6445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우승했다.

두산 매치플레이어 챔피언십 제패 이후 두 달 만에 우승 트로피 추가한 박성현은 시즌 5승으로 다승 부문 1위를 질주했다. 2009년 신지애(28)가 세운 시즌 최다승(9승)에 도전할 동력도 얻었다.

7월 한 달 동안 치러진 5차례 대회 가운데 4차례 불참하고 한차례 기권해 상금 뿐 아니라 대상 포인트를 전혀 보태지 못해 장수권, 고진영에 추월을 허용했던 박성현은 대상 포인트 1위로 가뭄하게 되찾

았다. 고진영에 6000여만 원 차이를 쫓았던 상금왕 레이스에서도 여유를 찾았다. 우승상금 1억 원을 받은 박성현의 시즌 상금은 8억591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미 작년 시즌 상금 7억3669만 원을 훌쩍 넘겼다. 다소 벅차긴 해도 김효주(21·롯데)가 2014년 수립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12억 897만 원)도 넘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12차례 대회에 출전해 5승을 올린 박성현은 올해 12개 대회에 더 출전할 수 있다.

2위 박주영(26·호반건설)을 9타차로 따돌린 완승이었다. 게다가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단 1개의 보기가 없이 버디만 18개를 잡아내는 무결점 플레이였다.

54홀 노보기 우승은 올해 E1 챔피언이었던 챔피언 배선우(21·삼천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연합뉴스



7일 제주 오라 골프장(파72·6445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함께 18언더파 198타로 우승을 차지한 박성현(넵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보미, 일본골프 3승...상금 벌써 1억엔

이보미(28·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시즌 세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상금왕을 향해 출발을 했다.

이보미는 7일 일본 삿포로 고쿠사이 골프장(파72·6520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메이저급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동갑 친구 김하늘(28·하이진즈)을 2타차로 제친 이보미는 지난 6월 어스(Earth) 먼디민첩 제패 이후 한달 만에 우승을 추가해 상금왕 2연패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보미는 우승상금 1620만 엔을 받아 시즌 상금은 1억1092만 엔으로 불어났다. JLPGA투어 이번 시즌에 상금 1억 엔을 넘어서는 선수는 이보미가 처음이다. 또 시즌 14경기만에 상금 1억 엔은 최소 경기 1억 엔 돌파 신기록이라고 일본 골프 다이제스트가 전했다. /연합뉴스



이보미는 상금과 평균타수, 대상 포인트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산행안내

해의 계절별가

8월 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8월 20일(토) 강원도 삼척 태백 육백산-응봉산-신바람 익계폭포, 진월동 식자재마트 03 : 20, 영주체육관 03 : 30, 한국병원앞 03 : 40, 문예회관후문 03 : 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4 : 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8월 21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8월 21일(일) 남

원 지리산 뱀사골, 영주체육관 07 : 00, 학동 증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7 : 20, 광주역 07 : 40, 문예회관후문 07 : 45, 동광주웨딩드레스 07 : 50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광주요산회 8월 21일(일) 경남 통영 연화도 연화봉 산행, 무각사 05 : 00, 문예정문 05 : 10, 광주역광장 05 : 20, 동광주출 05 : 30 \*다음카페 광주요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 채권 신고공고 (2차)

본 회사는 2016년 7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6년 7월 6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주식회사 화순일보

화순군 화순읍 화보로 4112

정신인 조속 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심판

- 사건번호 : 2016년단304 상속한정승인
- 사망자 : 이선재(320310-XXXXXX)
- 최종주소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909 위 땅 이선재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6년 8월 8일

- 공고인 : 오경미, 오지수, 오리나, 오미화, 오미현
- 한정승인수리일 : 2016년 8월 1일
- 공고기간 : 2016. 8. 8 ~ 2016. 10. 9
- 신고처 : 오경미(010-4644-6080)

###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 사건번호 : 2016년단1198 상속한정승인
- 사망자 : 박남숙(560430-XXXXXX)
- 최종주소 : 나주시 나주천2길 126, 704호 (남내동, 세원아파트)
- 등록기준지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368 위 땅 박남숙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6년 8월 8일

- 공고인 : 이흥은, 이진희
- 한정승인수리일 : 2016년 7월 29일
- 공고기간 : 2016. 8. 8 ~ 2016. 10. 9
- 신고처 : 이흥은(010-4632-2296)

###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 사건번호 : 2016년단1199 상속한정승인
- 사망자 : 김진기(640927-XXXXXX)
- 최종주소 : 전남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 2
- 등록기준지 : 경남 창원군 장마면 초곡리 460 위 땅 김진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6년 8월 8일

- 공고인 : 김숙영
- 한정승인수리일 : 2016년 7월 29일
- 공고기간 : 2016. 8. 8 ~ 2016. 10. 9
- 신고처 : 김숙영(010-9481-5932)

## 즐거운 영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제이슨본/덕혜옹주
2관	부산행/수아시이드스쿼드
3관	부산행/인천상륙작전
4관	제이슨본/빅/극장판오교위치
5관	제이슨본/덕혜옹주
6관	부산행/수아시이드스쿼드
9관	인천상륙작전/덕혜옹주
7관	세네카를 빅/부산행/인천상륙작전
8관	세네카를 부산행/인천상륙작전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MEGABOX | 하남점 메가박스**

현재상영작	금주개봉작
제이슨본	타넬
극장판오교위치	국가대표2

빅

부산행/빅

인천상륙작전/이아시에이/극장판오교위치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 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단개별로 안내를 따라가면 누르세요

**MEGABOX | 상무점 메가박스**

1관	덕혜옹주/부산행
2관	인천상륙작전
3관	제이슨본/수아시이드스쿼드
4관	부산행/빅/덕혜옹주
5관	제이슨본/우유시미2
6관	부산행/빅
7관	인천상륙작전/이아시에이/극장판오교위치
8관	수아시이드스쿼드/제이슨본
9관	인천상륙작전
10관	부산행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